

VI. 부록

부록 1. 문항별 문항카드

가. 인문계열 I

문항카드 1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교양 독서, 비판적 이해, 한국 문학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사냥’ 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다.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마녀로 판정을 받고 처형 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희생자들은 대개 여성, 빈민, 노인으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겨진 부류들이었다. 마녀사냥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희생자들을 보면 흔히 70퍼센트 이상, 심지어는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었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근대 초에 가부장제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남성 세계가 여성을 공격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편다. (중략)

마녀사냥은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들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

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나] 벤담은 1791년 ‘패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뒷날 『감시와 처벌』의 저자 미셸 푸코에게 있어서 패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전자 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정보 혁명 시대의 이러한 ‘전자 감시’가 종래 패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 있다. ‘패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 패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공통점이 있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있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 패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패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옹아매는 패놉티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중략)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새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훌쩍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꿴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주의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중략)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해 물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 나와 나에게도 들렸다. (중략)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오 년간 들어 본 적 없는 사과 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남 일꾼을……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열여덟 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의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두 가지 감시 기제를 제시문 [나]에서 찾아 비교하시오. [20점]
- (2) 제시문 [가]의 마녀사냥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해석하시오. [20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근대 사회 형성기로부터 정보 혁명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재까지 관통되는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집단과 개인, 감시와 복종, 매체의 변화와 감시 체제를 다루고 있는 세 편의 글을 읽고, 상호 관련되는 개념을 비교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 짓고 논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주경철의 「우리 안의 마녀사냥」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마녀사냥을 가부장적 질서의 강화라는 페미니즘 인식뿐 아니라 근대 국가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복종의 신체를 처형함으로써 규율에 복종하는 군질적 주체를 만들어낸 기제로 파악한다.

제시문 [나]는 홍성욱의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근대 규율과 감시의 기제로서 ‘패놉티콘’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 이후 정보 혁명시대에 등장한 ‘전자 패놉티콘’을 다루고 있다. 전자 패놉티콘을 통해 현대사회의 감시와 역감시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동질성을 작동 원리로 하는 사회 조직과 가족 제도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를 억압하는 집단주의 체제를 고발한다. 내부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억압 기제를 이질적인 대상인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각성시킨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1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1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130쪽)	문항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118-122	제시문 [가]	○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19	72-76	제시문 [나]	○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9	317-321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문항 1-(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근대 권력의 의미 및 규율과 통제의 기제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에서 근대 권력이 강제한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그와 관련된 두 가지 감시 기제인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을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가]의 논의를 제시문 [다]의 문학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특정 맥락에

서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과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 근대국가의 질서 확립의 기제로서 마녀사냥을 이해하고 그 논의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의 회사 조직과 가족 제도 차원에서 해당 기제가 작동되는 방식을 찾아내고 적용해야 한다. 본 문항에서는 상호 관련되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 짓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논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의 ‘복종’ 의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종은 근대 국가에서 개인을 균질적인 주체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함. - 마녀처럼 국가와 종교의 권위에서 이탈하거나 권력 당국이 부여한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억압되고 제거되어 왔음. * ‘균질’한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2점 감점 	5점
	제시문 [나]의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공통점을 서술함. : 모두 규율과 통제의 기제이며,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함. -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차이점을 서술함. : 패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면, 전자 패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음.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지구적임. * 근대 권력이 균질한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사회를 상징하는 통제의 기제가 바로 ‘패놉티콘’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3점 감점 	10점
	형식의 완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1-(2)	제시문 [가]에서 마녀사냥의 논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국가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균질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서 마녀사냥을 이해함. - 질서 부여는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에 의한 비판을 제기 	4점
	제시문 [다]에서 채식주의에 대한 회사(사회)에서의 규율 작동 방식 해석 및 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존재인 채식주의자를 타자화함으로써 집단 내부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확인함. - 집단주의를 강제하는 조직 내 규율 권력은 근대 마녀사냥의 기제와 다름없음을 논증함. 	6점
	제시문 [다]에서 채식주의에 대한 아버지(가족)의 규율 작동 방식 해석 및 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혜에게 폭력적인 아버지는 가족 공동체 및 사회에 내재한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대변함. - 집단주의를 강제하는 가족 제도의 규율 권력은 채식으로써 그에 저항하는 불복종의 신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복종시키려는 근대 마녀사냥의 기제와 다름없음을 논증함. 	6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점

7. 예시 답안

■ 문항 1-(1)

제시문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복종은 근대 권력 당국이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균질적 영혼’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국가에서 개인은 균질적인 주체인 국민으로 만들어지고 통제된다. 마녀처럼 국가와 종교의 권위에서 이탈하거나 권력 당국이 부여한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억압되고 제거되었다.

근대 권력이 균질적인 다수를 감시하고 규율 사회를 상징하는 통제의 기제가 바로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패놉티콘’이다. 원형의 사설 교도소인 패놉티콘은 바로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며,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정보 혁명 시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감시 기제가 ‘전자 패놉티콘’이다.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은 모두 규율과 통제의 기제이며,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패놉티콘은 시선을 통해 작동되는 반면 전자 패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그러한 기능을 하며, 패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패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문항 1-(2)

제시문 [가]에서는 마녀사냥이 근대의 국가 질서 강화를 위해 거부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함으로써 규율에 복종하는 균질적 주체를 만들어낸 기제라고 본다.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에서 근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량학살이었으며, 희생자의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근대에 강화된 가부장적 규범의 폭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는 남편의 공적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자리에서 유일한 채식주의자 영혜는 이질적인 존재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모두가 공유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영혜는 공동체의 화합에 균열을 가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채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로, 채식주의자는 “원만하”지 못한 자로 조롱과 억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질적인 대상을 타자화함으로써 사람들은 집단의 결속을 다지며 동질성을 확인한다.

특히 영혜에게 노골적으로 육식을 강요하는 가족은 더욱 억압적이다. 출가한 딸에게까

지 미치는 아버지의 폭력적 권력은 가부장적 질서를 대변한다. 근대 초 가부장적 질서가 굳건해졌다는 제시문 [가]의 의견에 따르면, 가족 내부의 규율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려는 가부장의 권력은 제도로서의 가족이 국가의 질서를 내재화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시문 [다]에서 회사 조직이든 가족 제도든 집단주의를 강제하는 규율 권력은 채식으로 써 그에 저항하는 불복종의 신체를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원들의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제시문 [가]의 마녀사냥이라는 기제와 다름없다.

문항카드 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비판적 이해, 사실적 이해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와 사이먼스와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 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사이먼스와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無注意) 맹시(盲視)’ 라고 칭했다.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하였다.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다.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다.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뻘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마] 이날 흥려시 소경(鴻臚寺少卿) 조광련(趙光連)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서 요술을 구경하였다. 내가 조광련에게 말하였다. “눈이 능히 시비를 판단치 못하고 진위를 살피지 못할진

대, 비록 눈이 없다고 해도 괜찮으리이다. 그러나 항상 요술하는 자에게 속게 되는 것은 이 눈이 일찍이 망령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려.”

조광련이 말했다. “비록 요술을 잘하는 자가 있다 해도 맹인은 속이기가 어려울 터이니, 눈이란 과연 항상 믿을 만한 것일까요?”

내가 말했다. “우리나라에 서화담(徐花潭) 선생이란 분이 있었지요.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더랍니다. ‘너는 왜 우느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세 살에 눈이 멀어 지금에 사십 년이옵시다. 전일에 길을 갈 때는 발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지를 분간할 때는 귀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고서 무슨 물건인가를 살필 때는 코에다 보는 것을 맡겼습지요.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되, 저에게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눈 아님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찌 다만 손과 발, 코와 귀뿐이겠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낮에 피곤함으로 미루어 보았고, 물건의 모습과 빛깔은 밤에 꿈으로 보았지요.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의심과 혼란도 없었지요.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두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백태가 끼었던 눈이 저절로 열리고 보니, 천지는 드넓고 산천은 뒤섞이어 만물이 눈을 가리고 온갖 의심이 마음을 막아서 손과 발, 코와 귀가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까마득히 잃어버려 스스로 돌아갈 길이 없는지라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화담 선생이 말했습니다. ‘네가 네 지팡이에게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 절로 알지 않겠느냐.’ 그가 말하기를, ‘제 눈이 이미 밝아졌으니 지팡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네 집이 있으리라.’ 이로써 논한다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요술을 보니, 요술쟁이가 능히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랴오.”

[문항 2] 제시문 [라]에서 파악한 ‘시각’의 특성과 제시문 [마]의 ‘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십시오. [30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인간의 시각에 대한 서양의 과학적 실험과 본다는 것에 대한 동양의 성찰을 담은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뇌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특징을 제시문 [라]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시문 [마]에서 눈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여 눈은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찾아내고,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다른 감각기관으로도 세상을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분석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59쪽)	문항 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95쪽)		문항 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박안수 외	비상교육	2018	178-182	제시문 [라]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30-31	제시문 [마]	○

5. 문항 해설

제시문 [라]에 나타난 ‘시각의 특성’과 제시문 [마]의 ‘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인간의 뇌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에서는 요술을 보고 믿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으며 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시문 [마]는 본다는 의미를 확장해서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감각기관도 세상을 잘 인지할 수 있음을 통해 ‘보는 것’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문항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에서 ‘무주의 맹시’의 원인으로 뇌가 많은 정보 가운데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시각의 특성을 설명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제시문 [라]에서 시각의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그리고 엄청난 융통성은 뇌의 전략임을 설명함.	5점
	제시문 [마]에서 눈은 스스로 속일 수 있기에 ‘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설명함.	10점
	제시문 [마]에서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다른 감각기관 등과 함께 세상을 더 잘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통찰적 태도를 설명함.	5점

7. 예시 답안

제시문 [라]는 시각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의 실험은 인간의 뇌가 ‘무주의 맹시’를 수행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는 본 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당한 무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뇌가 수많은 정보를 다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행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제시문 [마]는 ‘보는 것’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보는 것’은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제시문 [마]는 요술을 보고 믿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으며 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제시문 [마]는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감각기관도 세상을 잘 인지할 수 있음을 통해 ‘보는 것’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결국 제시문 [마]는 눈 밝은 것을 경계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제시문 [라]에서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뇌의 인지작용으로서 ‘시각’의 불완전성이라는 특성을, 제시문 [마]에서는 눈은 스스로 속일 수 있기에 그 한계를 인정하고, 눈을 과신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다른 감각기관 등과 함께 세상을 더 잘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통찰적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문항카드 3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 / 문항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영어 독해와 작문] 세부 정보, 중심 내용, 맥락, 함축적 의미 [독서] 상호 텍스트성,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교양 독서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 Tomatoes are well-loved everywhere. Cooks around the world do magic with them. There are more than 4,000 types of tomatoes and very many ways to eat them. Without tomatoes, we would have no tomato ketchup or pizza. Spaghetti would not taste the same, either. After the potato, the tomato is the most popular vegetable in the world. But wait—is it really a vegetable?

Maybe you think, “Who cares?” However, this question once came before the highest cour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890s. The government counted tomatoes as vegetables, and it imposed a 10% import tax on them. Importers, on the other hand, argued that tomatoes were fruits and should not be taxed.

The question went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The justices looked at both ① science and ② the daily use of tomatoes before deciding. They admitted that, scientifically speaking, tomatoes were fruits because they were the part of the plant holding the seeds. However, they considered that in everyday life people in the U. S. treated tomatoes as vegetables. For example, they ate tomatoes with meat or fish, not as a dessert. Therefore, the court ruled in 1893 that under customs law, tomatoes should be counted as vegetables. The importers had to continue to pay the tariff.

[사] 사회 생물학은 성차의 생물학적 기초를 찾으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업이다. 사회 생물학에서 말하는 성차는 인간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보여 주는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그러니까 진화론적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생물학에서는 먼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나 특성을 정당화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③ 자연적 사실을 ‘발견’ 하는 맥락에 이미 ④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채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설명 구조를 갖게 되는 식이다. 이때 처음 단계에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맥락은 여간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암컷 영장류는 새끼를 키우는 어미거나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만 그려졌다. 그러다가 제인 구달, 다이앤 포시, 비루테 갈디카스가 등장하여 암컷 영장류가 도구를 사용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등 이전까지 발견되지 못한 여러 모습을 발견하면서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가 크게 달라졌다. 1993년 『사이언스』 기사에서 기획자는 이렇게 질문한다. “남성 영장류학자들이 암컷 영장류를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 혹은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서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려 내고, 영장류 사회구조에서 한 개체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운이 나빠서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

사회 생물학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동물의 행동,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의 ‘발견’으로 제시되는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해석’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발견’이 전제된 사회적 사실은 결국 자연적 사실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항 3] 제시문 [바]의 ①-②의 관계와 제시문 [사]의 ③-④의 관계를 대비하여 논하시오. [30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과학적으로 발견한 자연적 사실을 근거로 남녀 성차와 같은 사회현상을 판단 또는 해석하는 틀로 삼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을 파악하고, 자연적 사실로 사회의 통념을 정당화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과학을 가치중립적이고 절대적 진리로 정당화하기보다는 과학이 우리의 가치관 또는 사회적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개방적 태도가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과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과학과 자연적 사실,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사실이라는 유사한 개념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제시문을 읽고 비교함으로써 다른 입장이 반영된 글을 해석하는 능력과 더불어 기본 영어 독해력까지도 요구되는 문항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영어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영독03-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75쪽)	문항 3 제시문 [바]
	성취 기준 2	[12영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75쪽)	문항 3 제시문 [바]
	성취 기준 3	[12영독03-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75쪽)	문항 3 제시문 [바]
	성취 기준 4	[12영독03-04]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75쪽)	문항 3 제시문 [바]
	성취 기준 5	[12영독03-06]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75쪽)	문항 3 제시문 [바]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94쪽)	문항 3 제시문 [사]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95쪽)	문항 3 제시문 [사]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95쪽)	문항 3 제시문 [사]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95쪽)	문항 3 제시문 [사]
	성취 기준 5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 3 제시문 [사]
	성취 기준 6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 3 제시문 [사]
	성취 기준 7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 3 제시문 [사]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영어 독해와 작문	안병규 외	천재교육	2018	13-14	제시문 [바]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32-35	제시문 [사]	○

5. 문항 해설

이 문항에서는 영어 지문 제시문 [바]의 ‘science’와 우리말 지문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두 제시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 1890년대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부과 판결을 중심으로 토마토가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과일이라는 과학적 정의와 토마토를 채소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사회적 관습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인 대상 토마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관세 부가라는 사회적 행위를 근거로 토마토가 관세법 상으로는 채소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맥락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에 따른 과일이라는 토마토의 자연적 사실과 채소로 소비되는 사회적 사실이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학은 토마토를 식물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체제로서 가치중립적이다. 반면 제시문 [사]에서는 암컷 영장류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적 발견의 결과물인 자연적 사실이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제인 구달과 같은 여성 영장류학자들의 연구 결과 새롭게 발견된 암컷 영장류에 대한 자연적 사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의 자연적 사실은 제시문 [사]의 토마토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와는 달리 연구의 시작점에 이미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이 전제된 상태에서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바]에서 가치중립적인 과학과 제시문 [사]의 사회적 사실에 영향을 받는 자연적 사실을 적절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면 적절한 답안이 될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p>제시문 [바]의 ① science ② the daily use of tomatoes 관계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의 쟁점은 토마토가 당시 관세 부과 대상인 채소인가 비관세 대상인 과일인가에 대한 것임을 설명. - 판결의 근거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하는 과학(①)과 채소로 사용(소비)되는 사회적 관습(②)임. - 미국 대법원은 토마토에 대한 과학적 분류(과일)는 사실로 인정하나 관세법과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관련한 판결에서는 채소로 사용(소비)되는 사회적 관습을 우선 시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과학과 사회적 관습은 상호독립적인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 과학은 식물 분류 기준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정상)과학임. <p>제시문 [사]의 ③ 자연적 사실 ④ 사회적 사실 설명 관계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로 암컷 영장류의 동물적 특성이 모성성과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임을 주장했고, 이 연구 결과는 새로운 발견의 결과물로서 자연적 사실(③)로 확립됨. - 암컷 영장류에 대한 확립된 자연적 사실은 인간사회의 남녀 성차를 자연 속 동물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마련했고, 남녀의 성차는 사회적 사실(④)이 됨. - 그 후 여성 연구자들(제인 구달 등)이 암컷 영장류 중 도구를 사용하고 성적으로도 적극적인 개체가 있다는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함. - 암컷 영장류에 대한 새로운 자연적 사실 발견은 암컷 영장류에 대한 기존의 자연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남녀 성차에 근거한 선별적 연구 결과이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 그 결과 암컷 영장류의 성적 특성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이미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제시문 [사]에서 자연적 사실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사실이 반영된 결과임. 	
	<p>제시문 [바]의 ‘① science - ② the daily use of tomatoes’와 제시문 [사]의 ‘③ 자연적 사실 - ④ 사회적 사실’ 관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바]는 미국 대법원이 재판의 쟁점인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을 제시했음을 보여줌. 이 맥락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에 따른 과일이라는 토마토에 대한 자연적 사실과 채소로 소비되는 사회적 사실이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제시됨. - 제시문 [사]는 남녀 성차를 정당화 하는 판단 기준으로 자연적 사실을 제시했음을 보여줌. 이 맥락에서는 자연에서 발견된 성차에 대한 자연적 사실과 이에 대한 진화론적인 해석이 실상 이미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제시문 [가]에서는 관세 부과라는 사회적 제도에 적합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분류보다는 사회적 사실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제시문 [나]에서는 남녀 성차 같은 사회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자연적 사실이 오히려 남녀 성차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이유로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기존의 사고 틀을 지적하고 있음. - 제시문 [바]의 과학과 사회적 관습은 각각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과 유사하나, 제시문 [바]의 ‘science’가 가치중립적으로 제시되고 사회적 관습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제시된 반면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은 사 	15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사실을 근거로 자연현상을 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름.</p> <p>-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비교함으로써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사회현상을 설명을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자연적 사실의 발견 과정 및 그 전제나 해석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확립된 자연적 사실의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p>	
	<p>형식의 완결성</p> <p>-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p>	5점

7. 예시 답안

제시문 [바]는 1890년대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부과 판결을 중심으로 토마토가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과일이라는 과학적 정의와 토마토를 채소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사회적 관습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인 대상 토마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관세 부가라는 상황 속에서 토마토가 관세법상으로는 채소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맥락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에 따른 과일이라는 토마토의 자연적 사실과 채소로 소비되는 사회적 사실이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학은 토마토를 식물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서 가치중립적이다.

반면 제시문 [사]는 남성 영장류학자들이 연구한 암컷 영장류의 특징에 수동적 성적 특성만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 사실로 확립되었음을 주장한다. 이 자연적 사실은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현상을 동물의 행동으로 설명하려는 진화론적 설명 근거가 되었고, 그 결과 남녀의 성차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차후 여성 영장류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컷 영장류의 성적 특성이 암컷 영장류의 일부 개체에서도 발견됨으로써 기존 자연적 사실과 이를 기반으로 확립된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다. 즉, 남성 연구자들의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가 당시 통용된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인식이 개입한 선별적 연구 결과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맥락에서는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사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의 과학과 사회적 관습은 각각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 [바]의 과학이 가치중립적으로 제시되고 사회적 관습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상정된 반면,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은 사회적 인식이 개입한 선별적 연구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시문 [사]는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사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순환적인 구조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는 과학이나 자연적 사

실이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사회 생물학과 같이 자연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사실의 발견 과정 및 전제나 해석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증명된 자연적 사실의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나. 인문계열 II

문항카드 4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I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비판적 이해, 교양 독서, 문학의 생활화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킨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을 언급하고는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 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변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이 글 어디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 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양한 생물 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생물 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며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여성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는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 생물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다. 지의류의 공생 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서 진화한 새로운 생물 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의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다]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이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용이 고개를 젓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禮義)이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마찬가지로이다. (중략) 또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고 용(龍)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시초(蓍草)와 울금초(鬱金草)는 신(神)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 쓰인다.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대개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으론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와 울금초와 소나무와 잣나무는 초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仁)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지(知)가 없으며, 복식이나 의장, 예악(禮樂)이나 병형(兵刑)도 없거늘 어찌 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너무도 미혹하구나.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의 세상 다스림이다. 다섯 가지 채색 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온몸에 두른 문채는 봉황의 복식이며,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형이고,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이다.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 제사에 귀하게 쓰이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대들보로 엮을 귀중한 재목이다.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군신(君臣) 간의 의리는 별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이에 허자가 큰 깨달음을 얻더라.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경쟁’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실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논지를 설명하시오. [20점]

3. 출제 의도

문항 1-(1) 이 문항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비판적 견해를 담은 두 편의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력과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1-(2) 이 문항은 하나의 관점을 통해 다른 한 편의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고전문학 작품에 반영된 내용, 표현 방법과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글의 논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응용력과 논리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는 김범목·윤용아의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흔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로 설명되는 경쟁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여,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규정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이은희의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흔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알려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통념적인 편견을 비판한다.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것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홍대용의 「의산문답」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허자와 실용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용은 사람과 만물은 평등하다고 설명하면서 천지만물 중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믿는 허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95쪽)	문항1
	성취 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1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130쪽)	문항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69-72	제시문 [가]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176-181	제시문 [나]	○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9	302-304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 문항 1-(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드러난 경쟁에 대한 견해를 대비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각각 경쟁과 진화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설명하고 그것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쟁이 발생하는 원인의 측면과, 경쟁을 수용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경쟁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했으나 상대를 인정하고 각자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생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확실성과 경쟁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공존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쟁보다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게 하여 글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논리적인 분석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다]의 ‘실용’의 관점을 통해 제시문 [나]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적용시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시문 [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인간과 만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실용’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에 대한 논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다윈의 진화론에서 모든 생명체에 우열이 없다는 점,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에서 생명체는 공생하고 상부상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간과 만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실용’의 관점을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 - 경쟁은 불가피한 것임을 지적함.	5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차이점 1) 경쟁 발생의 원인의 측면 - 제시문 [가]: 경쟁은 인간의 본성임을 지적함. - 제시문 [나]: 경쟁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여러 생물 종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발생함을 설명함.	5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차이점 2) 경쟁 수용의 태도의 측면 - 제시문 [가]: 경쟁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끔.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니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함을 지적함. - 제시문 [나]: 확실성과 경쟁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공존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경쟁보다 공존을 추구해야 함을 지적함.	5점
	형식의 완결성 -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1-(2)	제시문 [다]의 내용 이해 및 ‘실용’의 관점 파악 -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 - ‘실용’의 구체적 관점1: 사람과 만물은 귀천의 구분이 없음	5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실용'의 구체적 관점2: 사람과 만물은 돕고 살아옴	
	제시문 [나]의 내용 이해 -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변이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음을 파악하고 있음. -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에서 생명체는 서로 의존(공생)하고 상부상조함을 파악함. - 찰스 다윈이나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도 내용상 부합하면 점수 부여 가능	5점
	제시문 [다]의 '실용'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논지 파악 -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변이의 '다양성'을 주목하고,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실용'의 사람과 만물은 귀천의 구분이 없고 평등하다는 주장과 연결해서 서술함. -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에서 서로 의존(공생)하고 상부상조함을 '실용'의 사람과 만물은 돕고 살아왔다는 주장으로 연결해서 서술함.	5점
	형식의 완결성 -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7. 예시 답안

■ 문항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공통적으로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경쟁이 발생하는 원인의 측면과, 경쟁을 수용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쟁이 발생한 원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시문 [가]는 토머스 홉스의 주장을 근거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주장한다.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여러 생물 종이 서로 다투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쟁을 수용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시문 [가]는 경쟁은 상대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간주한다. 앞으로도 경쟁은 계속될 것이기에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획일성과 경쟁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합,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항 1-(2)

제시문 [다]는 실용과 허자라는 두 인물이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만물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비교한 글이다. 사람과 만물 사이 귀천의 구분이 없고, 사람과 만물은 돕고 살

아왔다는 점에 근거해서 실용은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허자의 생각을 비판한다. 실용은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허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을 예시하여 진화론의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생물체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게 된 변이의 ‘다양성’에 있기에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에서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 공생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나]의 논지를 실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생물체의 진화 과정이 획일성보다 다양성에 있고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고 강조한 점은 사람과 만물 사이에 귀천이 없다고 주장한 실용의 관점에 부합한다. 실용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금수, 초목은 모두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에서 생물 종은 서로 의존하고 공생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강조한 점은 만물이 서로 돕고 사람은 만물의 도움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실용의 관점에 부합한다. 따라서 진화론이 태생부터 경쟁보다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제시문 [나]의 논지는 하늘의 입장에서 사람과 만물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사람과 만물은 돕고 살아왔다는 실용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항카드 5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Ⅱ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교양 독서, 비판적 이해,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 사회 자본은 여러 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탓에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 ‘결속적 사회 자본’, ‘교량적 사회 자본’, ‘연결적 사회 자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이미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이고, 교량적 사회 자본은 이보다 조금 더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 외 구성원들과 맺는 개념이다. 연결적 사회 자본은 이보다도 더 먼 집단과 집단, 혹은 공공 기관과 같은 조직과 맺는 개념이다.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SNS) 이용이 동질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하지만, 이질적인 집단 간에서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뜨린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누리 소통망의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 면은 더 늘렸지만, 누리 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물고 뜯는 논쟁들을 자주 접하며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는 더 하락했다는 이야기이다.

사회 자본의 이런 상충적인 특성은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인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결속적 사회 자본이 강화되는 것은 교량적 사회 자본이나 연결적 사회 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과연 이러한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나’와 타자의 차이가 더 도드라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 차원으로 본다 해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

자본이 중요하지만,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에게는 교량적 사회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성인들의 누리 소통망 활동이 결국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이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못 믿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누리 소통망에서 친구를 선별하게 되는 것도 혹시 이런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

[마] 자연*은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로 태어나 이 땅 위에서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어 그 육체로 땅을 비옥하게 할 것이요. 당신들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서로를 도우시오. 당신들은 무지하므로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십시오. 만약 당신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이라면 당신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신들 각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들 인간에게 땅을 경작할 팔을,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한 줌의 이성을 주었소. 나는 당신들 각자의 가슴에 서로를 도와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정심의 싹을 심어 주었소. 이 싹을 꺾거나 썩히지 마시오. 이 동정심의 싹이야말로 신이 내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네의 가련할 수밖에 없는 당파적 논쟁의 격앙된 고통으로 자연의 목소리를 지우지 마시오.

당신네 인간들이 결핍하면 벌이는 잔인한 전쟁, 과오와 우연과 불행이 펼쳐지는 영원한 무대인 그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직 나 자연만이 당신들을, 당신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서로 간의 필요로 결합하게 할 수 있소.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의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의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음 내키지는 않겠지만, 가슴에 호소하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요.”

* 이 글에서 말하는 ‘자연’은 보편적인 이성을 뜻함.

[문항 2] 제시문 [라]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논하시요. [30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글과,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논한 고전을 읽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응시자의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제시문 [라]는 김윤지의 『박스 오피스 경제학』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현대 사회의 SNS, 즉 누리 소통망 현상을 ‘사회 자본’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소통의 기회와

양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소통이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관용론』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보편적인 이성을 뜻하는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성 과 동정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서로 돕고 용인하는 관용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97쪽)
		문항 2
관련 성취기준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45쪽)
		문항 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137-138	제시문 [라]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92	제시문 [마]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문 [라]에서 분석한 현대 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해, 서양 고전인 제시문

[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하게 하였다.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그 내용을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에서 분석하고 있는 누리 소통망(SNS)은 소통의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 주어 소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적 댓글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집단 간의 신뢰는 더 낮아지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이 누리 소통망 현상에 대해 [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회 자본’이 가지는 상충적 특성을 언급하며, 누리 소통망이 가까운 사이의 유대 관계는 강화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통합과 신뢰는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볼테르의 『관용론』의 일부인 제시문 [마]에서는 보편적인 이성을 뜻하는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말의 형식으로, 이성과 동정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서로 돕고 용인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권하고 있다. [마]와 같은 고전의 지혜를 [라]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온고지신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문제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 소통망 이용에 따라 계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되지만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지는 문제를 인식함. -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기 전보다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분석함. 	10점
	제시문 [마]의 내용이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인 이성으로서의 ‘자연’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기술함. -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육신과 함께 ‘이성’과 ‘동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전제를 설명함. - 서로 돕고 가르치고 용인하며, 여러 집단의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발견함. 	5점
	제시문 [마]에 근거한 문제 해결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 소통망 이용에 따른 문제는 이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 동정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때 개선/해결될 수 있음을 기술함. -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 합리적 판단(이성)과 공감의 마음(동정심),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언급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이러한 관용적 자세를 가진다면 누리 소통망을 통한 사회적 관계는 결속적 사회 자본에 그치지 않고 교량적 사회 자본, 나아가 연결적 사회 자본으로 확대될 것을 서술함.	
	글의 완결성	5점

7. 예시 답안

제시문 [라]에서는 누리 소통망 이용이 동질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결속적 사회 자본은 강화하지만, 이질적인 집단 간에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기 전보다 외부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누리 소통망 이용을 통해 더 강화되지만,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못 믿을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제시문 [마]에서는 보편적인 이성으로서의 ‘자연’의 말을 통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육신과 함께 ‘이성’과 ‘동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전제하고, 서로 돕고 가르치고 용인할 것을 권한다. 여러 집단의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볼 때,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누리 소통망 이용에 따른 문제는 이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 동정심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때 개선/해결될 수 있다. 특히 [마]에서 언급한바, 우리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곧바로 믿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대신 합리적 판단과 공감의 마음,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을 해 나간다면, 누리 소통망을 통한 사회적 관계는 결속적 사회 자본에 그치지 않고 교량적 사회 자본, 나아가 연결적 사회 자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항카드 6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II / 문항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작문의 구성 요소, 시장과 경제활동(수요, 공급, 시장 균형,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잉여), 세계 시장과 교역(무역 정책)
예상 소요 시간	3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표 1]은 X재의 가격에 따른 E국 소비자들의 수요량과 소비자 잉여를 나타낸다. [표 1]에 따르면 X재 가격이 100원일 때 E국 소비자들은 80개를 구입하며 이때 32,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는다. X재는 E국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일 수도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둘 간의 차이는 없다. 한편 [표 2]는 X재의 가격에 따른 국내 생산 X재와 수입 X재의 공급량과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표 2]에 따르면 가격이 100원일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X재는 5개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X재는 15개이므로 총 공급량은 20개이며, 국내 기업들이 개당 100원에 5개를 공급하여 얻는 생산자 잉여는 250원, 해외 기업들이 개당 100원에 15개를 공급하여 얻는 생산자 잉여는 750원이다. E국 정부는 자국 기업과 자국 소비자의 편익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해외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E국의 총잉여(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1] E국의 수요량과 소비자 잉여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수요량(개)	80	70	60	50	40	30	20
소비자 잉여(원)	32,000	24,500	18,000	12,500	8,000	4,500	2,000

[표 2] 국내에서 생산되는 X재와 해외에서 수입되는 X재의 공급량 및 생산자 잉여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개)	5	10	15	20	25	30	35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급량(개)	15	20	25	30	35	40	45
국내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원)	250	1,000	2,250	4,000	6,250	9,000	12,250
해외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원)	750	2,500	4,750	7,500	10,750	14,500	18,750

- (1)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E국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이 중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각각 구한 후, E국의 총잉여를 구하시오. [10점]
- (2) E국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여 X재의 수입량이 15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자. 이때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이 중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각각 구하시오. 문항 (1)의 결과와 비교하여 E국의 소비자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해 얻는 이득 혹은 손해가 얼마인지 각각 구하시오. [10점]
- (3) E국 정부가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여 X재의 수입량이 4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자. 이때 형성되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문항 (1)에서 구한 값들과 비교하고, 주어진 수입 할당제가 균형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출제 의도

역사적으로 인류는 무역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으며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국가 안보,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등의 이유로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보호 무역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관세, 수입 할당제, 환율 및 안전 규제 강화 등이 있다. 본 문항에서는 보호 무역 수단 중 하나인 수입 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경제적, 논리적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보호 무역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수리적 분석 능력 및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균형, 총잉여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82쪽)	문항3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129쪽)	문항3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221쪽)	문항3
성취 기준 2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221쪽)	문항3
성취 기준 3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224쪽)	문항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9	49, 50, 52, 53, 57-63	문항 3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55, 58, 63-66, 74, 75, 140	문항 3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9	56, 57, 59, 60, 62-64, 73-75, 152-154	문항 3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9	51-55, 64-67, 141	문항 3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56, 57, 60, 61, 64, 66-71, 147	문항 3	○

5. 문항 해설

■ 문항 3-(1)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이 여럿 있을 경우 공급량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및 균형 가격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수입재의 존재로 인해 총 공급량이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총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도록 하는 가격을 찾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답을 도출할 수 있다.

■ 문항 3-(2)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해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이 생겼을 때 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수입 할당제가 시행되면 수입량은 할당량을 넘지 못하므로 그에 따라 총 공급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총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도록 하는 균형 가격을 찾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보호 무역 조치가 여러 집단에 차별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후 소비자와 국내 기업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답을 도출할 수 있다.

■ 문항 3-(3)

주어진 정책에서 할당된 수입량이 문항 (1)의 균형 상태에서 실현된 수입량보다 크므로 기존 균형이 도입된 수입 할당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주어진 정책에서의 할당량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되어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균형 가격이 400원, 균형 거래량이 50개이며, 이 중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20개, 수입량이 30개이고, E국의 총잉여가 16,500원이라고 맞게 구하면 10점 만점 부여(각 2점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가격이 맞으면 2점을 부여함. - 균형 거래량이 맞으면 2점을 부여함. - 국내 기업의 공급량을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 수입량을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 E국의 총잉여를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10점
3-(2)	<p>균형 가격이 500원, 균형 거래량이 40개, 이 중 국내 기업의 공급량이 25개, 수입량이 15개, 문항 (1)과 비교했을 때 E국의 소비자는 4,500원의 손해를 보고, E국 국내 기업들은 2,250원의 이득을 얻는다고 맞게 구하면 10점 만점 부여(순서대로 각 2점, 2점, 1점, 1점, 2점,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가격을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 균형 거래량을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 국내 기업의 공급량을 맞게 구하면 1점을 부여함. - 수입량을 맞게 구하면 1점을 부여함(다른 수치는 다 틀리고 수입량만 맞게 구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에도 수입량은 맞으므로 1점을 부여함). - E국 소비자의 손해/이득의 크기를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 E국 소비자의 손해/이득 크기는 틀렸으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방향성을 맞게 구하면 총 2점 중 1점만 부여함. - E국 국내기업의 손해/이득의 크기를 맞게 구하면 2점을 부여함. - E국 국내기업의 손해/이득 크기는 틀렸으나, E국 국내기업들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는 방향성을 맞게 구하면 총 2점 중 1점만 부여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국 소비자와 국내기업의 잉여 변화를 따로 구하지 않고 E국 총잉여의 변화만 구하였고 그 값이 맞은 경우 전체 4점 중 2점을 부여함. E국 총잉여의 변화만 구하였는데 그 값은 틀리고 방향성만 맞는 경우 전체 4점 중 1점만 부여함. 	
3-(3)	<p>새로운 균형이 문항 (1)의 균형과 동일하다는 것을 맞게 구하고, 주어진 정책이 왜 균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10점 만점 부여(각 4점, 6점)</p> <p>균형 가격이 400원이며, 균형 거래량이 50개이므로 문항 (1) 균형에서의 값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맞게 구하면 4점 부여(각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가격을 맞게 비교하면 2점을 부여함. - 균형 거래량을 맞게 비교하면 2점을 부여함. - 균형 거래량과 가격을 따로 비교하지 않고 문항 (3)의 균형이 문항 (1)의 균형과 같다고만 서술해도 4점을 부여함. <p>주어진 수입 할당제에서 설정한 제한 수입량(40개)이 매우 느슨하여 문항 (1)의 균형에서 얻은 수입량(30개)이 제한 수량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주어진 정책이 균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6점을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의 논리적 완결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함. - [표1]과 [표2]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은 맞게 구하였으나 주어진 수입 할당제가 왜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6점 중 0점을 부여함. - 주어진 수입 할당제 하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공급표를 구하고 공급표가 그와 같이 변화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한 경우 6점을 부여함. - 새로운 공급표를 구하지 않더라도 도입된 제한식이 매우 느슨하여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6점을 부여함. - '이 문항의 경우에는 수입 할당제가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대부분 수입 할당제의 경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경우, 앞부분 설명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6점을 부여함. 	10점

7. 예시 답안

■ 문항 3-(1)

총 공급량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X재 공급량과 해외에서 수입되어오는 X재 공급량의 합이므로, 공급표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개)	5	10	15	20	25	30	35

해외 기업들의 공급량(개)	15	20	25	30	35	40	45
총 공급량(개)	20	30	40	50	60	70	80

100원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므로 ($80 > 20$) 균형이 아니다.

200원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므로 ($70 > 30$) 균형이 아니다.

300원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므로 ($60 > 40$) 균형이 아니다.

400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므로 ($50 = 50$) 균형이다.

500원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크므로 ($60 > 40$) 균형이 아니다.

600원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크므로 ($70 > 30$) 균형이 아니다.

700원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크므로 ($80 > 20$) 균형이 아니다.

따라서 총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은 400원이며, 그에 따른 균형 거래량은 50개이다. 이 중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은 20개이며 수입량은 30개이다. E국의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국내 생산자 잉여의 합인 16,500원이다 ($12,500 + 4,000$).

■ 문항 3-(2)

수입 할당제의 도입 후 수입량은 15개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공급량 및 총 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15개 이하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화가 없으며, 15개보다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기업 공급량이 15개로 제한됨.)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개)	5	10	15	20	25	30	35
해외 기업들의 공급량(개)	15	15	15	15	15	15	15
총 공급량(개)	20	25	30	35	40	45	50

따라서 총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은 500원이며, 그에 따른 균형 거래량은 40개이다. 이 중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은 25개이며 수입량은 15개이다. 문항 (1)과 비교했을 때, E국의 소비자 잉여는 12,500원에서 8,000원으로 감소하므로 소비자는 4,500원의 손해를 보며, E국 국내 기업들의 생산자 잉여는 4,000원에서 6,250원으로 증가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2,250원의 이득을 본다.

■ 문항 3-(3)

수입 할당제의 도입 후 수입량은 40개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공급량 및 총 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40개 이하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화가 없으며, 40개보다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급량이 40으로 제한됨.)

가격(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국내 기업들의 공급량(개)	5	10	15	20	25	30	35

해외 기업들의 공급량(개)	15	20	25	30	35	40	40
총 공급량	20	30	40	50	60	70	75

위의 공급표와 [표 1]의 수요표를 비교했을 때, 총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은 400원이며 그에 따른 균형 거래량은 50개이다. 따라서 주어진 수입 할당제의 시행 후 얻어지는 균형은 문항 (1)의 균형과 동일하다. 주어진 수입 할당제가 균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수입 할당제에서 부여한 제한 수입량이 문항 (1)의 균형 상태에서의 수입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즉 도입된 수입 할당제가 기존의 균형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느슨한 제약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갖지 않는다.